

기술개발·창업 돕는 '오픈랩' 조성된다

총 182억9500만원 투입...2022년 에너지밸리개발원에 완공 연구개발 지원·주민 재직자 대상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운영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업의 기술개발과 창업을 돕는 '오픈랩'이 오는 2022년 말 조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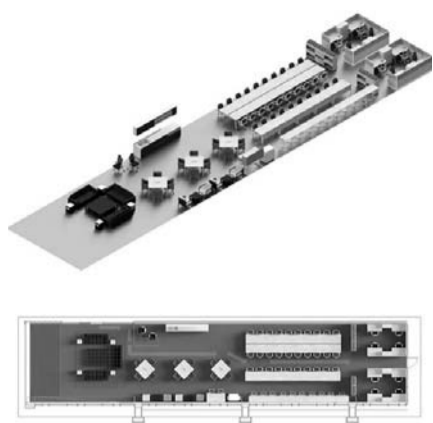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오픈랩' 조성사업 보조금 1억5750만원이 최근 교부 결정됐다. 지난 2018년 4월 시작된 오픈랩 조성사업은 올해 2차년도를 맞고 2022년까지 4년 7개월 동안 진행된다.

조성에는 광주시와 전남도·나주시, 한국전력공사, 광주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그리고 중장기 연구개발(R&D) 과제 참여기업 등이 참여한다.

사업비는 국비 100억여 원과 지방비 50억 원, 민간자본 31억 원 등을 포함해 총 182억9500만원이 들 예정이다. 올해는 국비 12억 원을 비롯해 23억5000만원이 쓰인다.

오픈랩은 지난 5월 준공된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3층에 318㎡ 규모로 조성된다. 에너지 분야 기업 전문 지원기관인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고 전남도, 광주시, 나주시가 출연한 기관이다.

오픈랩의 중심점 역할을 할 공간은 '메이커 스페이스'이다. 이곳은 신규 창업, 스타트업 육성 등 신사업 발굴 지원을 위한 협업 공간 구축된다. 3D 프린터, 후가



오픈랩 메이커스페이스 투시도.

공 시스템 등 연구개발 지원장비(2층 2대)와 10층 14대의 공용 장비 등 총 12종 16대가 마련된다.

오픈랩에서는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입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지원, 인

력 양성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현장 실습과 직무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재직자를 우수 인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기술교류회를 개최하고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해 과제를 발굴하는 등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가 제품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 프로슈머' 체계를 갖추고, 한전KDN·국립전파연구원 등과 협력해 하드웨어 보안 기반 전력 계통용 센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오픈랩은 신산업을 발굴하고 기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향후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다양한 정책사업과 연계도 할 수 있다"며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을 육성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직원들이 무안군 일로읍의 한 마을회관에서 전기안전을 점검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제공>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노후주택 안전점검 봉사

마중물봉사단, 14년간 활동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무안군 일로읍 일원에서 독거노인 노후주택과 마을회관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KRC희망나눔미 마중물 봉사단' 활동을 실시했다.

'마중물 봉사단'은 2006년 전남지역 본부 기전기술부 기계, 전기, 건축 등 전문기술 인력을 주축으로 결성된 봉사단

으로, 농어촌지역의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전기시설 점검·수리 및 전기설비, 전등 교체 등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박중호 전남본부장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활동"이라며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실천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균형발전·혁신도시 활성화 전국혁신도시협, 결의문 채택

공공기관 2차 혁신도시 이전 등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최근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난 24일 울산 중구 호텔다음에서 정례회를 열고 결의문에 담긴 4개 안건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데 뜻을 모았다.

결의문은 공공기관 2차 혁신도시 이전, 혁신도시 시·군 2 종합발전계획 신속 추진, 발전기금 운용에 혁신도시 소재 시·군·구 참여 보장, 공공기관 평가에 지자체 참여 가능 지표 포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의회는 "혁신도시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자리 잡고,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2차 혁신도시 이전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회에선 결의문 채택에 이어 현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연임을 결정했다.

박 구청장은 "협의회가 중심이 돼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9개 혁신도시가 건설된 11개 지역 시·군·구 단위로 구성됐고, 2006년 12월 설립됐다.

/연합뉴스

혁신도시 기관들, 갑질 근절·청렴 문화 확산 나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노사는 최근 나주 혁신도시 본사에서 '갑질 근절 선언서'와 성희롱 예방교육을 열었다. <aT 제공>

aT 상임감사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감사가 성희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면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자체 행사를 열며 기강 잡기에 나섰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노사는 지난 23일 혁신도시 본사 대강당에서 '갑질 근절 선언서'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병호 공사 사장과 서권재 노조위원장 등 '갑질 근절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고 갑질 근절과 상생·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선언식 뒤에는 구성에 푸른아우성 대표를 초청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열어 사례 중심으로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과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다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6일까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적극행정제도 정착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열었다. 순회교육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사례 제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공사는 지난 9일 혁신도시 본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제로 감사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자체감사활동과 청렴정책을 공유하고 감

사행정시스템 활용법 등을 논의했다.

조익문 농어촌공사 상임감사는 "반부패와 청렴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커진 만큼 다양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감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더 철저한 윤리적 잣대와 기준으로 감사인이 먼저 모범을 보여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청렴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여성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김모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감사에 대한 수사를 전남지방경찰청에 의뢰했다. 김 상임감사는 지난 23일부터 직무 정지된 상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T, 증기 농식품 수출 통관 애로해소 협약

관세청과 노하우 공유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이하 공사)와 관세청은 최근 농식품 업체의 해외 수출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사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 26일 서울 aT 센터에서 '농수산식품 수출통관 애로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주요 수출국 현지 통관 애로 해소 ▲통관문제 발생으로 인한 국제분쟁 시 공동 대응 ▲통관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분기별 세미나 및 컨설팅 개최 ▲수출국 통관 모니터링 공동조사 ▲통관거부사례 공유 및 전파 등

의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농식품 수출 분야 비관세장벽 애로해소를 위해 수출국의 현지 전문기관과 연계해 통관에 필요한 법률검토, 성분검사, 상표권 출원 등을 지원해왔다. 지난해는 24개국 수출에 대한 약 1800건의 수출통관 애로 사항을 해소했다.

이병호 공사 사장은 "농식품 수출 전문기관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관세청의 실시간 해외 통관정보, 해외과관 관세관들의 네트워크와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우리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드론 비행 배우고 블루베리 잼도 만들어요"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지역아동 열린강좌 실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 30일 여름방학을 맞아 광주지역 어린이를 초청해 '지역아동 열린강좌'를 열었다.

교육원은 이날 광주시 남구청과 협조해 사과나무지역아동센터 어린이 30여

명을 대상으로 드론비행 이론과 실습 교육을 펼쳤다. 교육과 함께 화순군에 있는 '숲속의 베리팜'을 방문해 블루베리 수확과 잼 만들기 체험 등도 진행했다.

교육원은 2008년 이 과정을 개설한 뒤 지역민에게 농촌체험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 1~2회 열린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총 13차례에 걸친 교육에는 18개 기관 348명이 참여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5년
1954~2019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2019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사 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5	5
총 계		95	28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19. 9. 6(금) ~ 10(화) · 전형일: 2019. 9. 27(금)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4
		목회학과(D.Min.)	2
일반대학원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3
		신학과(Th.M.)	10
		유아교육학과(M.Ed.)	6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4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8. 5(월) ~ 16(금)

· 전 형 일: 2019. 8. 20(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10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도시 36